구독료 납부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지용 이희 스캔 및 문의 ☎ (02)730-4488

佛教新聞

bulgyo.com

대표전화 (02)730-4488 제2882호

불기 2557년 1월 23일(2013년 / 단기 4346년 제4월 12일)

대우투어 daeseungtour
신임교환 불자들의 여행사
여법한 순례
품격있는 여행
☎ 1577-0206 www.대우투어.com
1960년 1월 1일(단) 제2호 발행

"대승보살행으로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 신년기자회견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어둠의 아픔을 나누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불교가 되겠다고 서원했다. 지난 30일 한국불교여사원장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장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한국불교가 대승불교의 사회적 연대을 바로 잡추고 국민들 속에서 수행하는 한해가 됐으면 한다"며 "고통의 바다에서 중생을 건지기 위한 대승보살의 서원서원 중인은 현대 우리가 실행해야 할 일을 찾아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어둠의 아픔을 나누겠다는 원서을 세운 조계종의 올해 전면에 내세운 것은 사회의 활동을 강조다.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과 공감하며 희망을 만들어가겠다고 천명한 종단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손을 내밀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승불교의 기원대승 현재사회에 맞게 구현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대사회적 활동을 강조하는 대승불교의 제자리는 기회라는 보살행을 통해 자기수행을 하고 수행한 공덕을 대사회 보살행을 실천한다는 것이다. 서울의 경제 중에서 나도 홀고 이웃도 홀은 자리이타의 말로 대승이라고 할 수 있다. ▶관기사 2면

한국불교에는 이미 대승의 실을 사는 수행기둥이 여러이다. 생명평화운동을 하는 도법스님이나 정토회 지금심사 법륜스님,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돌보는 능행스님이 대표적이다. 자본문이라는 주변의 세상의 바깥에는 스님들은 또 있다. 제3세계국가에서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는 스님들, 지방에서 어장 관리 포교를 하거나, 장애인, 노인 등 복지 분야에 활동하는 스님들이다.

이런 신년기자회견에서 조계종단은 대승보살행의 스님 개개인 활동이었던 것을 넘어, 종단차원으로 확대해보는 정이다. 종단이 중심에 서고, 불교전체가 참여, 노동위원회, 복지재단, 공익법인 이름아 등등과 연계해 이웃을 나누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왕십창시 및 성동구청과 함께해 지속적으로 감사을 갖고 해결해 왔던 실상기업,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사회의 약자를 위해 또 다른 활동을 고민하는 것이다.

"지금의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이웃이 보면고 고통한 중생의상 스님은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한해를 스스로 정리을 한들고 국민의 시선과나 한의 깊은 곳을 바라보며 변화해 갔다고 약속했다.

이현경 기자 ennaso@bulgyo.com

인권·헌법질서 보장 선진사회로 가는 길

'증오범죄방지법'반드시 필요하다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미국에서는 일방적인 증오범죄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대처한 인물 아한한위고 노숙해도 국가 주상원 특성상 상대적으로 증오범죄의 발생빈도가 높는데 미국은 1968년 이래 성별이 종와 종교에나 지위 귀해서 증오범죄를 방지를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이 인종이나 종교, 문장적 가치를 미국 전역이 이해관에 일반 범죄보다 더욱 엄하게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는 형등과 사회 안정을 구해도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美 60년대 흑백 논의 일반 범죄보다 '엄벌'

獨 극우보수 극단주의 선동자 범처벌 '초점'

중오범죄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8년 동과 인종 피부색 등으로 비롯되는 차별과 증오심으로부터 비롯된 폭력을 금지하는 첫 번째 법안이 미국 국회에서 통과됐고 이후 1990년에 '증오범죄 통계법' 이 통과되었다. 법률에 의해 강경은 의무조항 법률 지정을 수정하게 됐다. 이를 또 대표는 미국에서는 해마다 발생한 범죄을 분석한 통계'보고를 발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1990년대부터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외국인을 향한 증오는 폭력행위가 급증하기 이를 사회를 구해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방안은 극우보수주의자들이 외국인에 대한 테러, 공격 등이 가장 많이 일는 상태. 외 을 지원할 예정이다.

후원계좌 : 221701-04-375406 국민은행(예금주 : 사)불기2557년

인지수 기자 jisoo@bulgyo.com

실 첨는 순서

1. 다문화사회 '상생의 실'자
2. 증오범죄 처방법 선진국 사례
3. 특별인 모임에 대한 기대의견

여 통에 된다. 또 이러한 법의 영역을 더욱는 폭력 힘등이나 기관도 마들어 졌다. 이러한 방침을 거쳐 1968년 10월 일 방 의원서명 이한들이 보고되, 이 법은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 일부분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거나 또는 국민의 일부분에 대하여 폭력 조장 또는 사회의 조화를 선동하거나 위협하고 증오표현한 자는 경찰 이상 5년 이하의 형으로 처벌한다.